

2023. 6. 12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

한옥정책과장 김유식 2133-5570

건축자산정책팀장 김 성 2133-5572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4매

담당자 김영무 2133-5573

### '새로운 한옥마을은 어디?' 서울시, 7.21(금)까지 자치구 공모

- 지난 2월 '서울한옥4.0 재창조' 발표 후 첫 대상지 공모... 심사 거쳐 9월 선정
- 10년 간 한옥마을 10곳 이상 조성, 신규택지·한옥마을 사업형 등 3개 유형 모집
- 대상지 선정 적정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사업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시 "한옥 가치에 공감하고, 원하는 누구나 한옥에 살거나 지을 수 있도록 지원"

올해 2월, 서울 시내 한옥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「서울한옥4.0 재창조 추진계획」을 발표한 이후 북촌·은평과 같은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새로운 대상지를 찾아 나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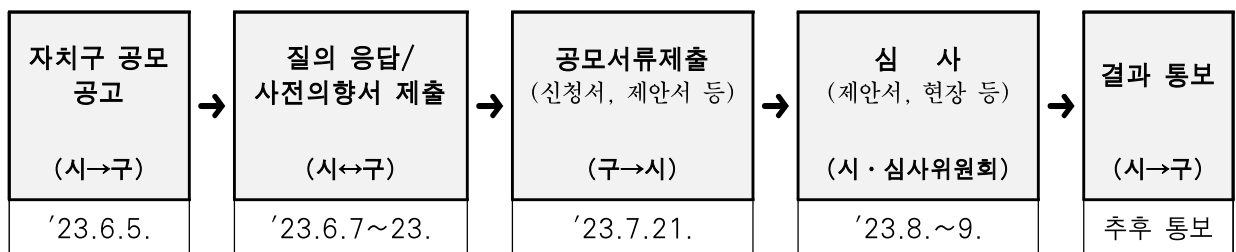
서울시는 오는 7.21(금)까지 새로운 한옥마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첫 자치구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. 시는 8월 중 공모심사 위원회를 거쳐 9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.

○ 시는 지난 2.14(화) 한옥 개념을 확장하고 창의적인 한옥 건축을 활성화 하기 위한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을 내놓고 '새로운 한옥, 일상 속 한옥, 글로벌 한옥' 총 3개 분야 실천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.

- 특히 두 번째 과제로 제시된 '일상 속 한옥'에서 향후 10년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 새로운 주거문화를 경험케 하고 도시 매력을 끌어올려 줄 '한옥마을'을 10개소 이상 조성하겠다 밝힌 바 있다.
  - 현재 서울에는 북촌, 익선, 인사동 등 '한옥주거지'와 은평과 같은 '신규 한옥마을' 등 총 12개소의 한옥밀집지역(한옥마을)이 있다.
- 공모는 새로운 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▲신규택지조성형, 기존 주택지에 연계된 마을을 조성하는 ▲지구단위계획 수립(변경)형, 10호 이상 한옥을 건립하는 ▲한옥마을사업형, 유형에 따라 규모와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해당하는 유형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.
  - '신규택지조성형'은 1만 $m^2$  이상 규모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공영개발 방식(도시개발사업)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하게 되며
  - '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(변경)형'은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변경을 통해 5천 $m^2$  이상 기존 주택지를 개발하게 된다.
  - '한옥마을 사업형'은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10호 이상의 한옥을 건축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으로 민간 등이 참여 할 수 있는 사업 단위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.

유형	[신규 개발지] 한옥마을 신규택지조성형	[기존 주택지]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(변경)형	한옥마을 사업형
규모	약 1만 $m^2$ 이상 권장 <small>*각 유형별 최소 규모 권장사항으로, 이 외 규모도 논의를 통해 선정 가능 / 단,사업방식에 따른 법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.</small>	약 5천 $m^2$ 이상 권장	10호 이상
개발여건	신규 택지 조성 가능 지역	기존 주택 연계 마을 조성	10호 이상의 한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일단의 범위(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)
사업방식 (안)	관련 도시계획변경 절차 및 사업승인 절차 이행 ▼ 공영개발 사업 추진	관련 도시계획변경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▼ 개별 필지 개발	관련 도시계획변경 절차 및 사업 시행 ▼ 사업단위 개발

- 평가는 ▲대상지 선정 적정성 ▲사업계획 타당성 ▲사업추진계획 ▲사업 기대효과 등의 항목을 평가하며 기존에 한옥이 없는 지역일 경우, 가산점 등이 추가로 부여된다.
  - 양호한 주거지 조성 및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규모·입지특성 등인지를 평가하는 '대상지 선정 적정성'과 실질적인 사업 실현 구상이 담기는 '사업추진계획'에 가장 큰 배점(각 30점)이 주어지며,
  -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구상을 들여다보는 '사업계획의 타당성', '사업 기대효과' 등 항목에 각 20점씩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.
  
- 시는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한옥 경관과 양호한 주거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 중에서 그동안 개발여건 등의 한계로 방치·훼손돼 새로운 정비 대안이 필요한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평가, 유형별로 균형 있게 선정한다는 계획이다.
  - 지난 6.2(금)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한옥마을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, 6.23(금)까지 사전 질의 및 의향서 접수를 받은 뒤에 7.21(금)까지 공모 신청받는다.
  - 아울러 시는 한옥마을 조성을 희망하는 대상지 중 해결 방안이 필요한 곳은 사전검토, 전문가 컨설팅, 관련 부서 간의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


-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“올해 새롭게 수립된 ‘서울한옥4.0 재창조’를 통해 편리하면서도 창의적인 한옥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한옥마을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서울 시민이 한옥의 가치에 공감하고, 원하는 누구나 한옥에 살거나 지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

< 한옥마을 조성 예시 : 은평한옥마을 전경 >